

기고

우리 집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
주택용 소방시설

최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여전히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다소 감소했지만,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공간은 생활과 밀접해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재는 '초기 1-2분'이 생사를 나누는 만큼, 경보와 초기진압이 실제 피해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주택 화재 피해 조사 결과 상당수 가정에서 연기감지기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늦게 발견해 대피가 지연되거나, 작은 불씨를 소화기 한 대로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결코 복잡하거나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하는 즉시 경보음을 울려 가족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며, ABC형 분말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초기 불길은 충분히 진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명피해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전남은 고령 인구와 농촌형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화재 대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스스로 초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기난방기구 사용 증가, 노후 배선, 건조한 날씨 등 화재 요인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월 1회 정도 작동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 정리,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등 생활 속 작은 실천도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예방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집에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생명을 살립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상운

신라시대 때 당나라로 유학을 간 스님을 당승(唐僧)이라 불렀다. 오늘날 비유하면 하버드대 출신이다. 당대에 스님이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오면 최고의 신지식인으로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당시 당승으로 알려진 분이 의상 대사이며 유명한 원효 스님은 당나라로 가다가 해골 물마시고 깨달아 다시 신라로 돌아온 스님으로 당승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재능이 탁월하신 스님 한 분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10년간 공부하고 귀국한 당승이 있었다. 이분의 설법을 들으려고 국내 많은 스님, 보살, 신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어느 스님이 당승에게 먼저 질문하였다.

스님! 10년 동안 당나라에서 배운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승은 말했다.

眼橫鼻直(안횡비직)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보충 설명이 없었다.

사람들은 보충 설명을 요구했지만, 빙그레 웃으며 '안횡비직이라!'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깨우친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보충 설명을 몽게버렸다.

그 후 10년 지나서 당승의 말씀을 깨우친 스님이 바로 함허당(涵虛堂) 스님이다.

함허당 스님은 《金剛經五家解說疏(금강경오가해설의)》 합본으로 편찬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안횡비직'이란 성어가 등장한다.

眼橫鼻直(안횡비직)의 성어의 뜻은 "눈은 가로로, 코는 세로로 찢어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풀이하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눈은 가로로, 코는 세로로 찢어 있다!

고 있다. 일부 불교 불자들은 "잘생긴 얼굴"이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당승이 '예쁜 얼굴'이란 뜻을 10년 동안 배운 깨달음이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함허당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얼굴에서 찾아낸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눈(眼)은 코(鼻)에게 항상 자기 생각과 고집을 드러낸다. "왜! 너는 내 눈처럼 가로로 되어있지 않고, 세로로 있느냐?"라고, 또 코(鼻)는 눈(眼)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내처럼 눈이 세로로 되어있지 않고, 가로로 있느냐?"라며 항상 자기주장과 고집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며 상대방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깊은 뜻을 함축한 성어처럼 오늘날 우리 정치, 사회와 조직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깊은 갈등이 만연한 사회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그렇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가치관 차이, 부모 훈계와 자식의 반항과 소통 부재, 부모의

통제와 자식의 독립성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서로 대립해 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설득과 이해, 감정 분리, 소통하기, 거리두기 등 다양한 갈등 치유법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부모를 사랑하면서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두 감정 대립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우리 사회에 노사갈등을 보자. 물가가 오르는데, 회사 경영자의 어려움과 노동자의 임금, 성과급 갈등,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의 고용 안정 갈등, 노사 소통 부재 등 노사 대립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익은 공평한가?', '회사는 누가 더하는가?'라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교사 학생 간의 갈등이 생긴 이유를 보자. 교사는 질서와 예의, 권위를 요구하고 학생은 과도한 간섭, 학생 인권 요구하며, 디지털 SNS 문제 등 상호 간의 역할과 경계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소통이 떨어지니 교내 갈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정치 여야 갈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우리 민초들은 무수히 겪어왔다. 여당은 국정운영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야당

은 견제 비판이 따르며, "정책 성과는 내 것!, 실패는 상대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수없이 경험했다. 정치인들의 과거 약속 불이행 경험과 상대방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적(敵)으로 인식하면서 정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원인은 두 가지이다. 진보는 '문제 있으니 바꿔야 한다!'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보수는 '급하게 바꾸면 더 위험하다!' '국가개입을 최소화(자율)해야 한다!'라는 차이가 있다. 두 진영은 정책 논의의 보다는 이념 대립을 먼저 앞세우고, 국민도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사회 갈등이 가장 심각함을 체감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변화와 안정, 분배와 성장이라는 가치 충돌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은 둘 중에 누가 틀렸다고보다 균형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개의 사물이 치우쳐 충돌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정답은 중용(中庸)이다. 중용을 인식하여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 뜻하지 않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안횡비직은 아첨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누앙스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하니 어느 쪽도 중용이 아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앞설 때 우리 사회는 신뢰 자본이 쌓이고,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고, 갈등의 질이 바뀔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음력 12월 10일)

Grid of 12 daily fortune tellings with zodiac icons and text. Topics include health, wealth, and relationships for various zodiac signs.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